

함께



실컷



맘껏

동이를
지켜라
초록숲놀이터

놀이터를 지켜라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은 도시놀이터 개선사업, 농 어촌 아동지원사업,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폐쇄 예정인 놀이터,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아동들의 놀이 환경을 지켜주는 사업입니다.

어느덧 여섯 번째 프로젝트인 '초록숲놀이터'는 서울시의 낙후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곳으로 선정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놀이터입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초록숲놀이터는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일방적인 디자인이 아닌 지역 아동의 생각을 듣고,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면서 진행되는 참여 디자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놀이터 이용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주민 설명회, 아동 및 성인 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초록숲놀이터는 서울시, 노원구, (주)코오롱, (주)청우편스테이션, (주)아이땅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주)코오롱에서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목적에 적극 지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재능기부까지 후원하여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초록숲 놀이터**

Chapter	Topic	Page
I	놀이터를 만나다	4
II	놀이터를 이해하다	12
III	놀이터를 함께 그리다	26
IV	새로운 놀이터를 디자인하다	46
V	놀이터를 기다리다	54
VI	초록숲 놀이터를 만나다	60
VII	초록숲 놀이터를 기념하다	72
VIII	에필로그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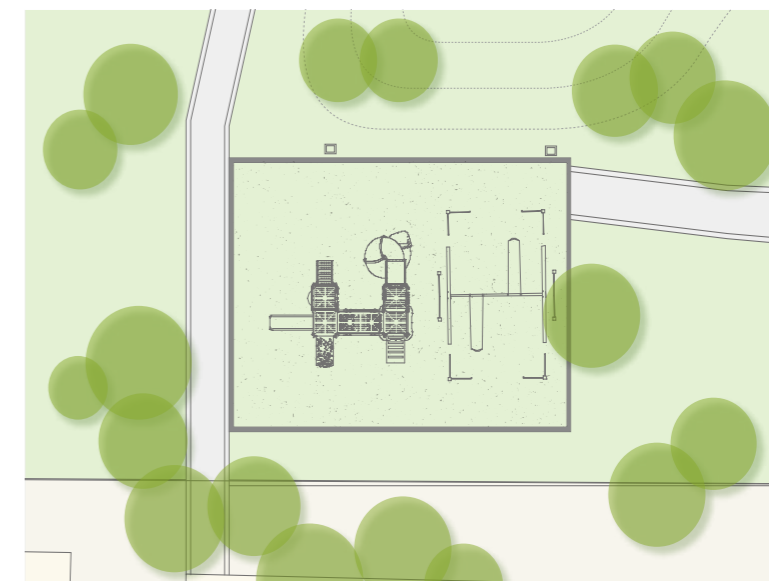


|
놀이터를
만나다

대상지 개요



인근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과 복지정책과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선정된 이번 놀이터는 만남부터 새롭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출구를 통해 놀이터로 들어섰다. 마들체육공원이라는 큰 공원내에 위치해 있었지만 마치 복지관의 놀이터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주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주민들과 복지관에 들어가기 위해 놀이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외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는 없었다.



대상지 개요 및 시설 현황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770-2 마들체육공원내 위치
조성시기 1986. 03. 마들체육공원 지정
 1990. 11. 6 7,109㎡ 규모공원 조성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노원에코센터, 주차장 등으로 구성
 2015.03 놀이터정비 공사 시행
놀이터면적 약400㎡

놀이시설물	구분	명칭	수량
조합놀이대		원통슬라이드	1ea
		직선슬라이드	1ea
		흔들다리 건너기	1ea
		밧줄 오르기	1ea
		계단	1ea
단품놀이기구		그네	2ea

마들체육공원



마들 체육공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조성된 대규모 근린공원이다. 예전 상계동 지역을 '마들'이라 불리면서 이름 지어진 이 공원은 일반적인 근린공원과는 달리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외공연장, 수영장,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문화체육공간으로 그 크기가 67,108㎡ 규모에 달한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주변 지역에서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공원 한 켠에는 조합놀이대와 그네가 모래위에 놀이터가 있다.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놀이터를 찾지만 이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놀이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덩그러니 놓여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지길 원하는 주민요청을 외면한 채 지금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마들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산책로에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산책의 반환점이 되는 공간이다. 놀이터 뒤 편에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이 여럿 위치해 있어 다수의 장애인과 보호자가 놀이터를 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장애인 시설이 많아서인지 공원내 대부분의 동선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놀이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놀이터와 다르지 않았다.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모래바닥과 계단을 올라야만 탈수 있는 미끄럼틀은 정작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에 불과했다.

대상지 주변시설 현황



- | | | | | | |
|---|--|--|--|--|---|
| <p>초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천초등학교 ② 중원초등학교 ③ 월천초등학교 ④ 당현초등학교 | <p>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록어린이집 ② 연두어린이집 ③ 엘리트어린이집 ④ 새솔어린이집 ⑤ 콩알어린이집 ⑥ 별사랑어린이집 ⑦ 창4동어린이집 | <p>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마들근린공원 ② 들국화어린이공원 ③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 ④ 사랑어린이공원 ⑤ 초안산체육공원 ⑥ 월천근린공원 | <p>경로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계마을아파트 경로당 ② 녹천경로당 | <p>복지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②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③ 서울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④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⑤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 <p>실외놀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동17단지 상상놀이터 ② 마들체육공원 놀이터 ③ 중계센터힐파크 놀이터 |
|---|--|--|--|--|---|

지역현황

* 상계 6,7동 현황

계	인구		장애인 등록
	남	여	
36,564명	17,155	19,409명	1,266명

* 장애인 등록 현황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록 현황	(평균)타 자치구 장애인 등록 현황	노원구 장애인 등록 현황
392,824명	15,713명	27,370명

▶ 노원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타 자치구 대비 약 57% 더 많은 상황

- 약 56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등록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며 도봉, 강북 등 인근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 그 중에서도 마들체육공원이 위치한 상계6,7동은 노원구 장애인 복지시설의 약 85%가 위치하고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복지시설	병의원	약국	체육시설	공원
12	7	18	7	108	16	-	14

- 노원구 장애인 복지시설 7곳 중 6곳이 상계동

마들체육공원 놀이터 이용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	위치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2 (상계6,7동 771)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 노원구 상계6.7동 덕릉로 70가길 96
성모자애드림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45
서울시립노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73
인근학교(상천초 등)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왜 아이들이 오지 않는 놀이터가 되었을까?



II
놀이터를
이해하다

대상지 인근 대체놀이터

다함께 숲 놀이터



- 도보 5분 거리 마들체육공원 내 놀이터
- 녹지와 함께 어우러진 모험놀이터와 모래놀이장 등으로 구성
- 가깝지만 놀이시설물이 없어 다양한 놀이를 하기 어려움

대창어린이공원



- 도보 15분 거리 위치한 놀이터
- 조합놀이대, 그네, 분수, 시소, 모래놀이대, 사면놀이대, 운동시설물 등으로 구성
- 비교적 먼 거리이고 큰 차길을 지나쳐야해서 대상지 인근 거주 아동의 접근이 어려움
- 인근 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
- 인근 아동들은 재미가 없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



들국화어린이공원



- 도보 5분 거리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터
-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 모래놀이장 등으로 구성
-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조합놀이대 일부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중계센트럴파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 도보 5분 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놀이터
-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등으로 구성
- 비교적 시설정비가 잘 되어있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이용
- 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비거주 아동이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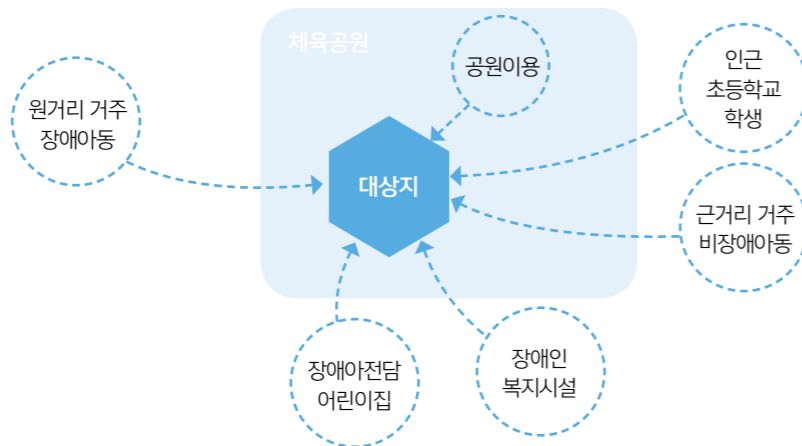
마들체육공원 놀이터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놀이터를 살펴봐도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이용을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도보 5분거리로 가장 가까운 중계센트럴파크 놀이터와 들국화어린이공원은 바닥은 고무칩으로 포장되어 휠체어 진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단차가 높고 접근방식이 어려워 장애아동들이 즐기기에 역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간 구성이나 놀이기구도 모두 유사하고 평범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었다.

놀이터 이야기

● 마들체육공원 놀이터의 하루

마들체육공원 놀이터는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었다. 오전에는 아침운동을 하러 나오신 어르신들이 눈에 띄었고, 점심 시간에는 인근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이용했다. 오후 2시부터 4 시까지는 놀이터 바로 앞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장애인들과 함께 간단한 체조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중 20대 초반의 장애인들은 놀이터에서 어울려 노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으면 엄마와 함께 나온 영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추어 형, 누나를 데리러 가면서 놀이터에 잠깐씩 머무른다.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은 5-6 시 사이에 놀이터를 방문한다. 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거나 놀이터 주변을 자유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며 논다. 오후 6시가 넘으면 운동하러 나오신 어르신들도 놀이터를 떠나 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놀이터는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지금의 노원마을공원에서는 하루동안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사용자 이야기

“놀이터가 오래됐어요.”

- 2001년에 문을 연 후 2008년 재조성되었지만, 2018년 현재 모습은 놀이 당사자들이 보기에 낡고 오래된 놀이기구들 뿐이다.



“모래바닥이라 우리 아이가
걸어다니기에 너무 어려워요” - 장애아동 부모

“중학생 아들이 복지관에서 치료가 끝나면
종종 방문해서 이용해요” - 장애아동 부모

“이 놀이터에는 놀 게 없어요.”

- 커다란 조합 놀이대와 그물오르기, 2개 안장의 그네가 현재 놀이시설의 전부이다. 아이들은 여럿이 뭉쳐서 놀아야 재미있는데, 놀이시설들의 상태 뿐 아니라 시설물의 개수도 만족스럽지 못한 듯하다.



“여기서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 놀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놀아보지 않은 아이들도 많다. 마들체육공원 놀이터에 매겨진 부족한 점수들을 총체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현상인 것 같다.



설문조사

이용이 낮은 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과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4월 4일부터 20일까지 마들체육공원 및 놀이터 이용객과 인근 중계센트럴파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놀이터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실시

2018년 4월 4일 ~ 4월 20일 마들체육공원 전체/중계센트럴파크 내 놀이터 인근

● 대상

마들체육공원 및 놀이터 이용객 및 인근 거주자 총 75명

● 구성

총 20여 문항

- 놀이터 이용,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현재 만족도 및 니즈 파악
- 이용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질문으로 놀이터 조성 방향 설정

“산책하기에는 좋은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놀만한 놀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되고 깨끗하지 않아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바닥도 모래로 되어있고 기구도 이용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마들체육공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놀이터를 알고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응답 수는 높았다. 하지만 놀이터를 이용하는 빈도 수는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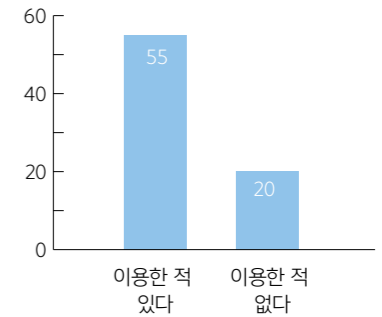


Q. 마들체육공원 놀이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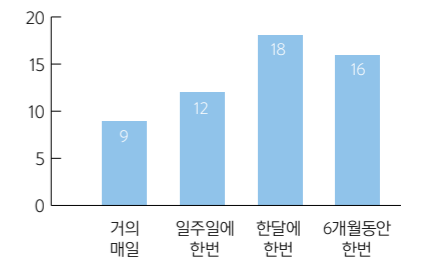
A. 6개월 동안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어요 (29.1%, 16명)

A.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해요 (32.7%, 18명)

마들체육공원 이용여부



마들 체육공원 놀이터 이용빈도



놀이터의 머무는 시간도 매우 짧게 나타나 대체로 30분 이상 머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로 놀이기구와 시설 부족, 오래된 놀이시설물, 비위생적 환경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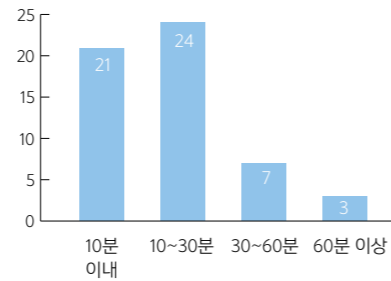


Q.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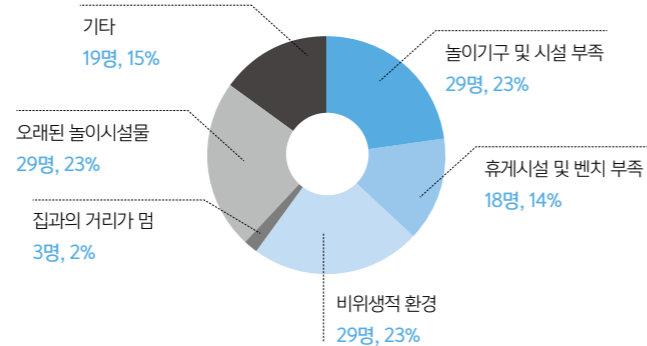
A.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이용해요 (43.6%, 24명)

A. 10분 이내로 이용해요 (38.2%, 21명)

마들체육공원놀이터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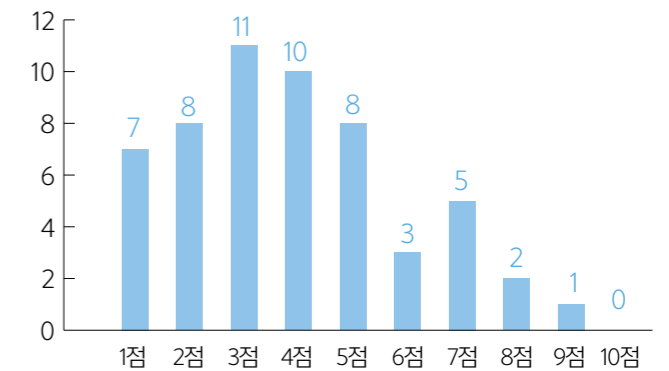
Q. 마들체육공원 놀이터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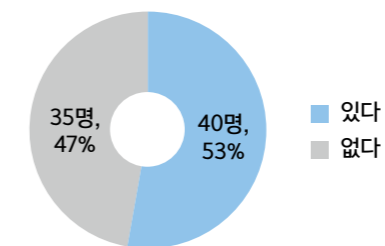
전체적인 이용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3.89점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다른 놀이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놀이터의 주요 이용자가 장애가 있는 아동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공원 주변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지의 응답자의 53%가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 3.8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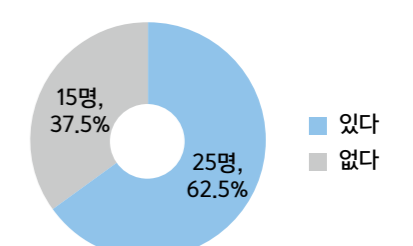
마들 체육공원점수



장애인 및 가족 여부



장애 아동과 놀이터 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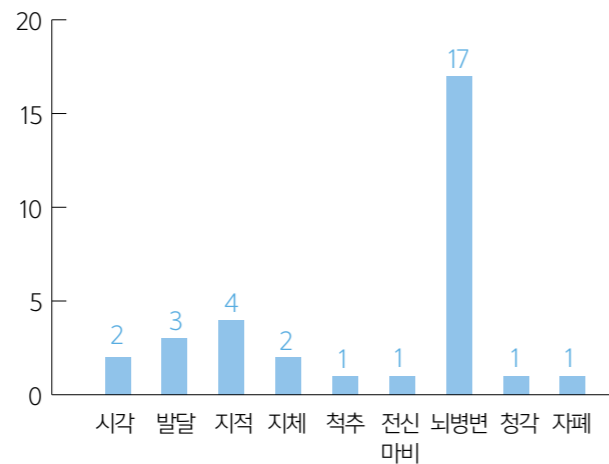


장애의 유형을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가 가장 높았는데 이 장애의 특징이 보행장애와 일상생활의 동작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놀이터의 모래포장마감이나 놀이기구의 형태는 다른 놀이터에 비해 이용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68%가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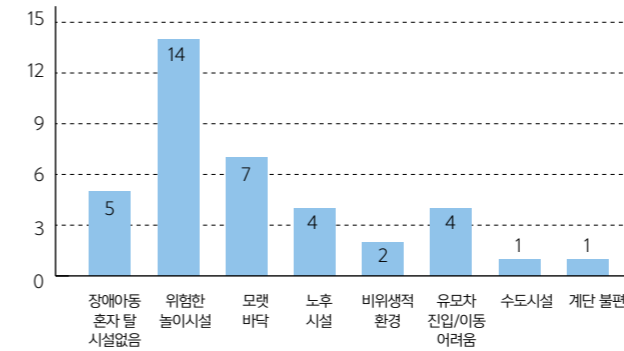
(32%는 장애아동을 위한별도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뇌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을 받게되는 장애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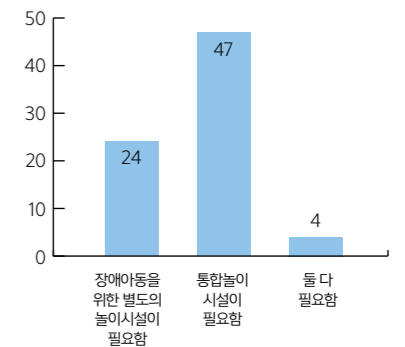
장애 유형
(직접응답자 포함)



장애 아동과 놀이터 이용시 불편사항 (중복응답)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왜 아이들이 오지 않는 놀이터가 되었을까?”

주변 지역 특성상 장애를 가진 아동과 함께 놀기 원하는 요구가 있으나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불편한 아이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놀이기구를 함께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용율이 떨어짐.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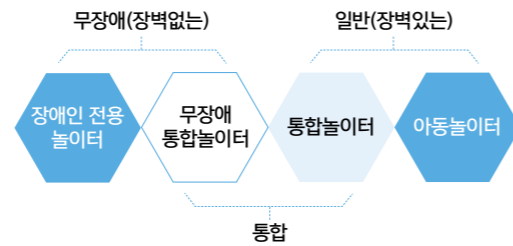


III 놀이터를 함께 그리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아동은 놀권리를 가지고 있다”

통합놀이터에서의 통합의 의미



무장애는 '장벽이 없는(barrier free)'를 의미한다. 이때 장벽은 세가지 영역 즉,

1.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
2. 사회활동과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등의 태도
3. 정보화시대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의 장벽

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세가지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놀이터이다.

반면 통합이란 무장애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의미하며 따라서 통합놀이터란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을 기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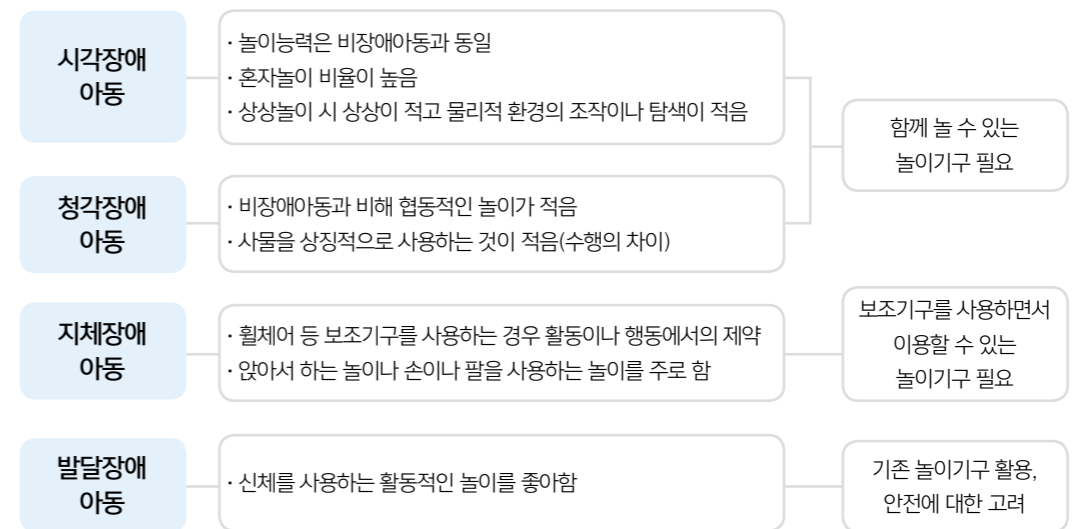
플레이코어의 통합놀이터 7가지 원칙



*참조 : inclusiveplayground.org

1.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다.
2. 통합놀이터는 아동뿐 아니라 장애아동과 동행한 가족, 비장애아동과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이다.
3. 통합놀이터는 놀이터의 놀이기구, 놀이시설 뿐 아니라 전체 놀이터 공간에 대한 접근 보장을 지향한다.
4. 통합놀이터는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재미, 호기심, 모험심,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이다.

장애 유형별 놀이 및 놀이시설



* 참고자료 : 무장애통합놀이터매뉴얼,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2016

어린이디자인워크숍

모두 다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시
2018년 3월 28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초록어린이집

참여인원
비장애아동 9명
(지역아동 및 장애아동형제 등)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워너비놀이터 그리기를 진행하였다.
특히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형제 중에 장애아동이 있거나 놀이경험이 있는 비장애 아동 위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놀이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그려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과정

- 장애가 있는 형제나 친구와 함께 어떤 놀이를, 어떤 방식으로 즐겼는지 놀이경험을 공유
- 함께 놀았을 때 아쉬웠던 부분이나 더욱 재미있게 놀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기

-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기
- 그림의 내용을 발표하며 친구들과 함께 생각 공유하기



자기소개

놀이경험 공유하기

장애인 친구에 대해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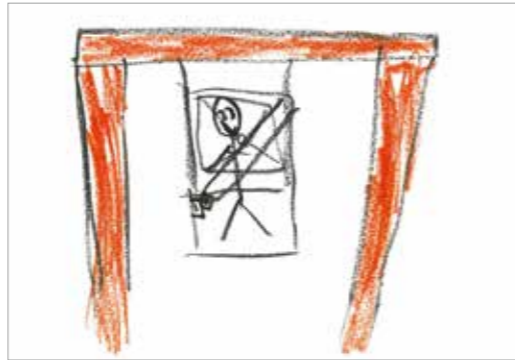
통합놀이터 그려보기

내가 그린 놀이터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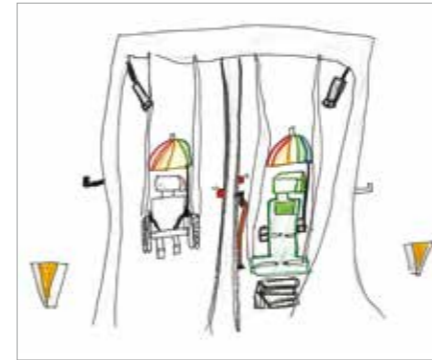
결과물



회전무대 :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을 위한 전자동방식 회전무대로 버튼을 누르면 휠체어 진입이 편한 슬로프가 놀이기구에서 나오는 방식



안전벨트 그네 : 앉아있기 힘든 장애아동을 배려한 안전벨트형 그네



휠체어 그네 : 휠체어를 탄 채로 그네의 줄을 연결하여 탈 수 있는 그네. 시각장애이용 지팡이 거치대, 우산꽂이 등 함께 설치



바구니그네 : 장애인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바구니 형태의 그네



휠체어 슬로프 슬라이드 : 휠체어를 탄 채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동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 : 혼자 힘으로 미끄럼틀을 타기 힘든 장애인 친구를 배려해 물을 흘려 더 편하고 재미있게 내려 올 수 있는 방식. 안내견 임시보호장소, 지팡이 거치대등을 함께 두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배려

주민디자인워크숍

마들체육공원은 어떤 놀이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일시
1회차
2018년 3월 22일
오후 4시 - 6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행태와 놀이방식, 함께 놀이를 하는 친구와 보호자의 역할 등을 이해하기 위해 장애아동의 형제와 부모, 장애어린이집 교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회차
2018년 3월 29일
오후 4시 - 6시

장소
초록어린이집

참여인원
장애아동, 장애아동부모 및 형제,
장애아동어린이집교사,
비장애아동어린이집교사 등
20여명



1회차 / 3월 22일

문제의 발견

우리가족&어린이집의 놀이경험에 대해 공유하기

- 장애/비장애 아동과의 놀이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 대상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용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놀이행태와 놀이 환경,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 아동의 장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놀이방식이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 놀이기구나 바닥상태, 주변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놀이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 아동의 장애유무, 놀이방식, 놀이터 환경에 따른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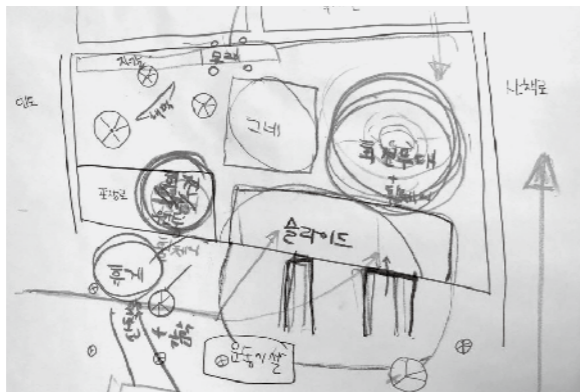


2회차 / 3월 29일

공간 및 기구 디자인 하기

공간 구상 및 동선 계획하기

- 체육공원과 인근 복지기관, 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공간 조닝
- 진입동선과 체육공원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



놀이기구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기

- 마인드맵을 통해 아동의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놀이경험이 가능한 놀이기구 디자인 도출
- 함께 놀이를 즐기는 친구나 가족, 보호자를 고려한 설계 방식 고민



장애아동 놀이관찰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는 바로 이런 놀이에요!”

일시
2018년 4월 11일

장소
디보빌리지 (실내 놀이터)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

참여인원
초록어린이집 장애아동 16명
어린이집 교사 18명

장애아동의 놀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놀이관찰을 진행하였다. 아동 1명당 교사 1명이 함께 놀이를 진행했고, 특정 놀이 또는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보다 많은 인원의 교사가 함께 놀이를 보조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의 이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를 방문하여 마들체육공원 놀이터의 변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호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찰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실내 신체놀이 관찰

볼풀놀이+영상



트램펄린



실내 흔들놀이



원통슬라이드



실내용 조합놀이대

동적인 놀이를 좋아하거나 스스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운 아동들은 볼풀 놀이나 흔들놀이 등을 즐겼다. 교사가 안고 트램펄린을 뛰거나 아동을 업히고 선생님이 뛰어 온 몸이 점프를 하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정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아동들은 인지 놀이나 조작놀이를 즐겼으며, 실내용 조합놀이대의 얇은 경사를 교사의 손을 잡고 걷는 등의 놀이를 즐겼다.

실외 바깥놀이 관찰



조합놀이대는 함께 올라갈 보호자와 밑에서 받아줄 보호자 2명이 필요했고, 특히 원통슬라이드는 보호자가 함께 타기엔 비좁아 이용이 어려웠다.



바구니형 그네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안전벨트 그네 역시 몸이 고정되어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교사들도 그네 위에 아동을 앉히거나 눕힌 후, 밀어주는 행동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노동력이 적은 편이었다.



진입로에 단차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회전무대는 교사와 아동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놀이기구였다. 회전을 통해 액티브한 놀이경험을 할 수 있어 놀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전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은 친구가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시소는 교사가 함께 안장에 앉아야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1인용으로 설계되어 불편하게 기구를 이용해야 했다. 동적인 놀이를 무서워하는 아동들은 작은 흔들놀이에 앉아 균형감각을 익히는 등의 놀이를 즐겼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놀이터

아동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보호자의 노동을 덜어주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공간

좁은 놀이터 공간을
푸른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근 공원까지 확장하여
조화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넓어진 공간만큼 아동들은
다양한 놀이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연계된
조화로운 공간

시설

아동, 공원 이용객,
복지시설의 장애인 방문객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놀이시설

놀이

모든 아동들이 다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비장애 아동은 물론이고
장애아동도 원하는 놀이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놀 권리

관계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로써 하나가 되는
물리적, 정서적 화합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장애/비장애 아동의
놀이화합의 장

결과정리

놀이행태

바깥놀이터로는 대체로 산책을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국내에 몇 곳 없기 때문에 실외 놀이터 이용경험이 거의 없었다. 반면에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향에 따라 동적인 놀이와 정적인 놀이로 선호도가 나뉘었다. 동적인 놀이는 주로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아동 1명에는 보호자가 적어도 1명은 필요했고 원활한 놀이를 위해서는 2명 이상이 필요했다.

놀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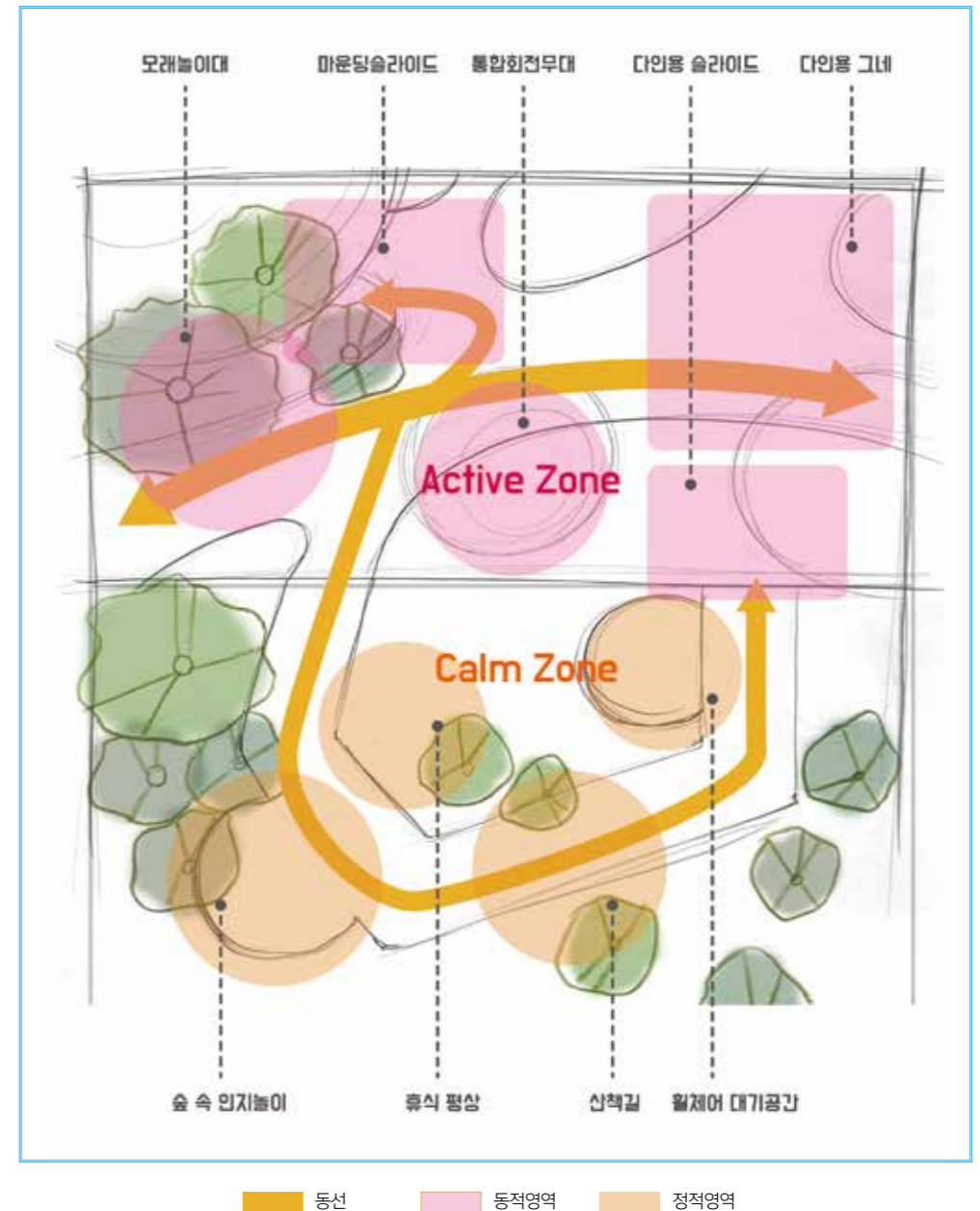
비장애 아동들은 장애 아동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선호하였다. 그래서 다수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그림을 많이 그렸다. 보호자의 경우,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놀이기구를 선호했다.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에 올라타고 함께 슬라이드를 타거나 시소를 타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1인이 이용하도록 디자인 된 놀이시설물을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닝

크게 Active Zone과 Calm Zone으로 나누어 다양한 놀이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존의 놀이터 공간에 녹지 공간으로 확장된 Calm zone을 구성하여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 공원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동선

공원 산책로로부터 이어지는 기존 이동동선을 그대로 살려 놀이터를 가로질러가 되 놀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성하였다. 공원과 복지시설, 인근 거주지역에서 모두 접근 가능한 개별 진입로를 구성하고 식재들 사이로 산책 동선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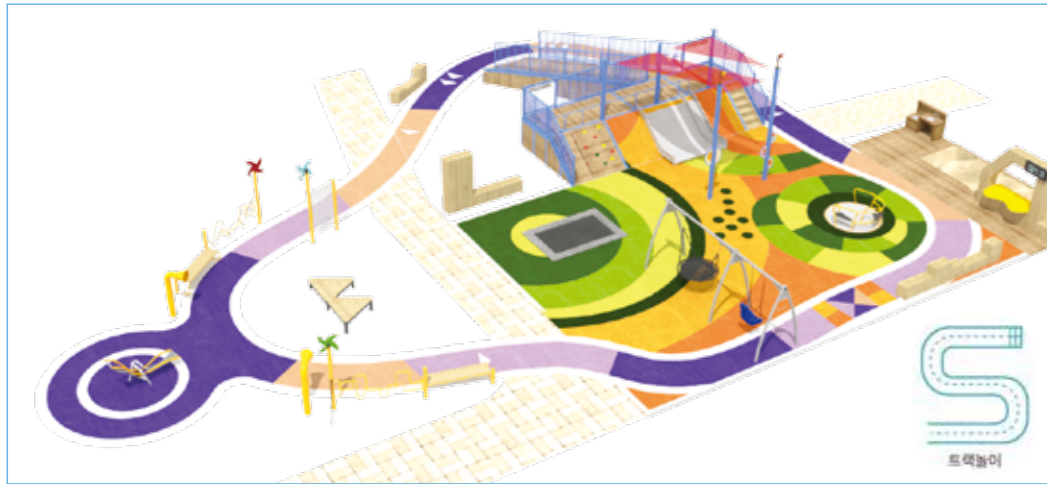
모두가 행복한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IV 새로운 놀이터를 디자인하다

컨셉

자연스러운 어울림, 초록숲 통합놀이터



계획

자연이 주는 영감

- 마들 체육공원의 이름없는 놀이터는 공원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이용자도 없이 공간의 장점을 물어버린 채였다. 삭막하게 서 있는 조합놀이대를 걷어내고 초록의 나무 그림자 아래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너른 놀이터를 만들고자 계획했다.
- 공원의 자연 속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빛과 시원한 그늘을 느낄 수 있도록 놀이터의 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곳곳에 휴게와 짐을 놓을 수 있는 시설물을 배치하여 아이들 또한 함께 뛰고, 쉴 수 있는 자연 통합적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함께하는 공간

- 놀이터의 위치적 특징상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었다. 근처의 시설들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다양성 또한 예상할 수 있었다. 좁은 놀이터 공간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넓게 감싸는 트랙은 아동들에게 배당되는 놀이 공간의 개념적 확장으로도 연결 시킬 수 있었다.
-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에 배치된 놀이기능은 많은 사람의 선호를 얻은 기구로 의견을 모아 선정했다. 아동부터 어른까지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바구니그네와 넓은 트램폴린, 휠체어도 접근이 가능한 회전무대,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도 즐길 수 있는 안전벨트 그네와 누워서 타는 시소를 적용하여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마련하였다.
- 그 밖에도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광폭 슬라이드와 휠체어를 접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적용된 사면놀이대로 놀이공간의 통합적 성격을 가시화하였다.

자연스러운 어울림

-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자연스러운 어울림은 우연한 마주침으로 인해 개인이 가진 사회적 인식의 벽을 허물기 위해 계획되었다.
- 첫 번째로,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가장 즐거운 주 놀이기구로 설정하였다. 그로 인해 함께 놀았던 친구의 특이성을 먼저 인식하기보다 함께 즐거움을 공유했던 같은 이용자로 남으며 점차적으로 벽이 허물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계획이다. 놀이공간 내를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우연한 마주침을 계획하고 트랙을 따라 달리는 동선을 유도하며 곳곳에 인지놀이 요소를 적용하여 이용자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시키고 교육적인 모래놀이공간은 위생의 문제와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최소화한 공간에 설치하였다. 또한 데크 면을 적용하여 휠체어이용자도 모래놀이영역 내부의 이용자와 양방향으로 놀 수 있도록 양방향 모래놀이 가벽을 설계하였다.
- 또한, 공원 내의 거대한 식재를 최대한 살려 자연 속에서 함께 뛰어 놀고 나무 그늘에 땀을 식힐 수 있는 자연놀이터로 계획하였다.

자연의 속삭임 자연이 주는 영감

-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뛰어 놀며 감정적, 감성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
- 자연의 소리,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개방적 공간

물리적 통합 함께하는 공간

- 모든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위치적 특성이 적용된 모임의 공간
- 어떤 사람도 신나게 놀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놀이기능 적용

사회적 통합 자연스러운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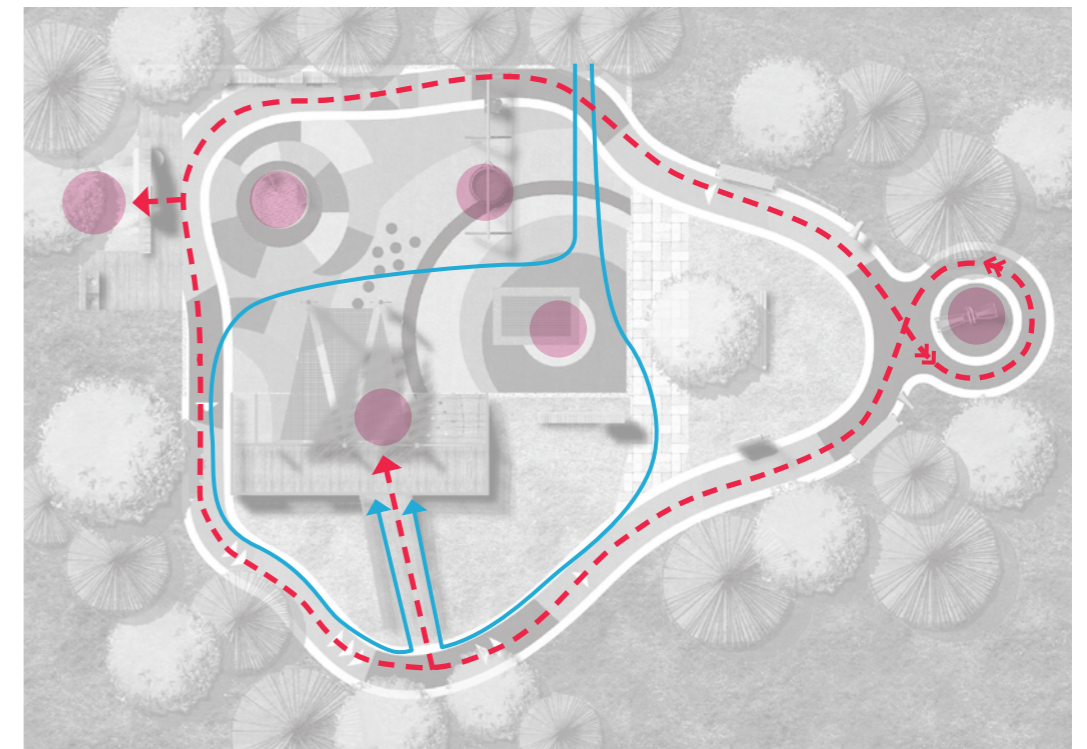
- 뛰어다닐 수 있는 너른 공간과 예상치 못한 마주침을 경험할 개방적 공간
- 많은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사이즈 대형화
- 휴식기능이 가능한 시설물의 배치

디자인안



- | | |
|------------------|----------|
| ① 양방향 모래놀이벽 | ① 앞음벽A |
| ② 무장애 회전무대 | ② 앞음벽B |
| ③ 유니버설 다인용그네 | ③ 파이프 벤치 |
| ④ 사면놀이대 | ④ 평상 |
| ⑤ 3000*2000 트램폴린 | |
| ⑥ 소리관 | |
| ⑦ 누워타는 시소 | |
| ⑧ 미러놀이 | |

동선계획



- ← 환चे어 순환동선
- ← 환चे어 놀이동선
- 주요 놀이공간

새로운 놀이터를 디자인하다



사면놀이대

- 보호자, 여러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광폭슬라이드와 휠체어를 접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사면이 적용됨
- 로프잡고오르기, 암벽오르기, 광폭슬라이드, 기본슬라이드, 계단, 놀이보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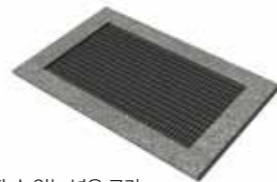
무장애 회전무대

- 휠체어 진입 가능한 턱이 없는 회전무대



누워타는 시소

-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도 이용 가능한 시소



트램폴린 (3000*2000)

-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넓은 크기



유니버설 다인용그네

-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거나 누워 탈 수 있는 바구니그네
-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안전벨트가 적용된 시트



양방향 모래놀이벽

- 모래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벽



미러놀이

- 양방향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과 마주보며 거울놀이 가능



소리관

-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형 소리관



앉음벽



파이프벤치

휴게시설 파이프벤치, 평상, 앉음벽A, 앉음벽B

놀이시설 *공간 : 고무칩 길 따라가기, 고무칩 바닥 패턴 놀이(땅 따먹기 등), 데크 사면 오르기

*놀이시설 : 사면놀이를 포함 다양한 이용자들을 수용 가능한 대형/유니버설 디자인의 시설물

기타시설 LED태양충전 시계, 세면대



V
놀이터를
기다리다

마들체육공원놀이터 주민설명회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오후 12시

장소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지하층 강당

지역 주민, 아동들과 함께 진행했던 디자인워크숍과 놀이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완성된 디자인을 소개하는 날이다.

완성된 디자인을 함께 공유하며 추가적인 제안과 보완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추후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 조금 더 주민맞춤형 놀이터로 일부 디자인이 수정되었다



노원 놀세이버 활동



마들체육공원 놀이터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조직인 놀세이버를 구성하였다. 놀세이버로 활동하는 주민들은 놀이터 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후, 관리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신청자격요건

- ① 놀이터 리뉴얼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 ②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커뮤니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 ③ 기타 놀이터 리뉴얼 및 활성화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놀이터 이름 공모



이름도 없는 무명의 놀이터에 아이들과 주민들은 초록숲놀이터라는 예쁜 이름을 선물하였다. 노원 놀세이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아동들에게 추천받은 이름 중, 최종 2개를 선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숲이 우거진 놀이터라는 의미의 '초록숲놀이터'가 최종 선정되어 놀이터에 제대로 된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놀이터 이름 후보 공모

2018년 8월 1일 - 10일

이름 선정 투표

2018년 8월 13일 - 14일
놀이터 인근 복지관

놀이워크숍

“놀자! 함께, 실컷, 맘껏!
바로 이런 놀이에요!”

1회차

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오후 4시 - 6시

장소
노원 에코센터 모험놀이터

진행
박혜연 놀이활동가

참석자
노원구 지역아동



2회차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4시 - 6시

장소
노원 에코센터 모험놀이터

진행
박혜연 놀이활동가

참석자
노원구 지역아동



놀이터 옆 녹지공간에서 아이들의 자유놀이 공간이 되었다.
정해진 공간을 벗어나 스스로 놀이공간을 구성하고 놀이를 이어가면서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욱 자라날 것이다

집에서 사용한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환경까지 생각한 물총을 만들었다.
페트병과 풍선을 이용한 물놀 이로 온 몸이 흠뻑 젖은 아이들의 표정에는
즐거움이 묻어 나온다. 7월의 무더위는 시원한 물놀 이로 잊은 듯 하다.



VI
초록숲
놀이터를
만나다

개장식

만나서 반가워~ 초록숲 놀이터야!

일시

2018년 8월 31일
오후 3시 - 5시

장소

초록숲놀이터

참여기관

초록어린이집
연두어린이집
다운복지관 댄스동아리
좋은소리
와글와글
풍선아저씨

새로운 놀이터가 공개되는 날,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득 매웠다.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드나드는 방문객들까지 이 놀이터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놀이터의 탄생을 축하해주었다. 비장애아동은 물론이고 장애아동까지 모두 함께 초록숲놀이터를 즐기는 모습이였다.



개장식 여는 마당

축하공연1

초록어린이집



축하공연2

연두어린이집



축하공연3

다운복지관 댄스동아리
여우와 곰들이



축사 및 커팅식

어린이디자인단 대표,
지역주민 대표,
후원사(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
노원구청,
시공사 등



개장식 체험 마당

페이스페인팅/ 스티커

진행
놀세이버



부채만들기

진행
좋은소리



안전나무만들기

진행
아이땅



버블놀이

진행
초록어린이집



개장식 체험 마당

풍선 만들기

진행
풍선아저씨



간식마당

진행
중부지부



놀이마당

진행
외글외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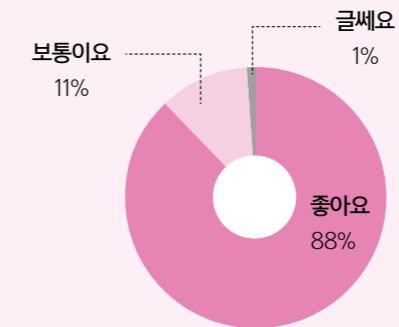
개장식 현장설문조사

새롭게 바뀐 초록숲놀이터에 대해 지역 아동들과 주민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변화된 놀이터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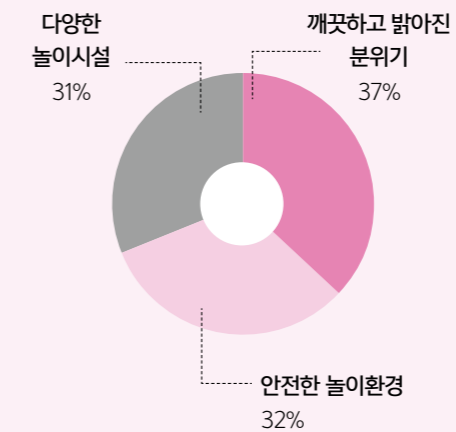
가장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밝아진 분위기에 대해 3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안전한 놀이환경과 다양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3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초록숲놀이터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가요?



초록숲놀이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Ⅶ
초록숲
놀이터를
기념하다

백일잔치
놀이터야! 백일을 축하해~

일시
2018년 11월 9일
오후 3시 - 5시

장소
초록숲놀이터

참여기관
초록어린이집
연두어린이집
새솔어린이집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다운복지관 탐스타
나라차태권도
노원청소년수련관 리스펙트
전용수 미술사
좋은소리



백일이 지난 초록숲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과거에 이름도 없고 아이들이 찾지 않는 놀이터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다. 초록숲놀이터를 애용하고 아껴주는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놀이터의 백일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들의 축하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백일잔치가 펼쳐졌다.



백일잔치
여는 마당

감사패 전달

참여
놀세이버 / 노원구



댄스공연

참여
다운복지관 탭스타



태권도 시범

참여
나라차태권도



하모니카 공연

참여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백일잔치 여는 마당

어린이집 공연

진행
연두어린이집



청소년 댄스

진행
노원청소년수련관
리스펙트



마술공연

진행
전용수 마술사



학부모공연

진행
초록어린이집 학부모



백일잔치 체험 마당

초록숲노래방



한지등 만들기

진행
좋은소리



간식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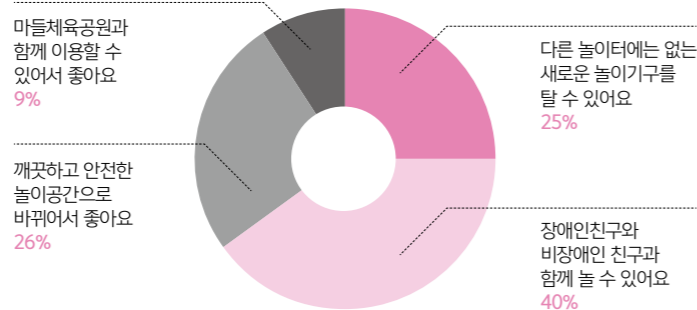
진행
연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새솔어린이집
증부지부



백일잔치 현장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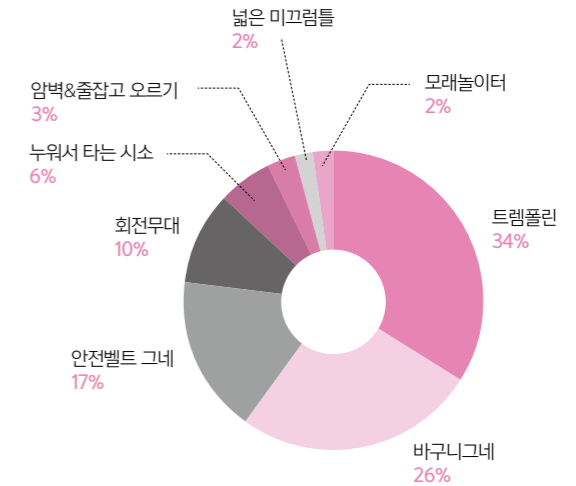
백일 동안 놀이터를 이용해본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 과연 놀이터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친구와 비장애인 친구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라서 좋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합놀이터로 만들어진 초록숲놀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응답이었다. 이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새로운 놀이시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뒤를 이었다.

초록숲놀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서 좋아요



초록숲놀이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는 트램폴린과 바구니 그네였다. 트램폴린과 바구니 그네는 실외 놀이터에서는 보기 힘든 놀이시설이어서 아이들의 높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두 놀이시설 모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뒤이어 안전벨트 그네와 회전무대도 재미있는 놀이시설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초록숲놀이터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공간은 ?



통합놀이터를 만나고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만날 수 없는 통합놀이터.

초록숲놀이터가 생긴 후 이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백일잔치에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남녀노소, 성별과 장애를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합놀이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지역주민 (비장애 아동 학부모)

“장애아동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더 자주 찾게 되는 놀이터예요”

장애아동이 있어서 오히려 놀이터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우리 아이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교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록숲놀이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지역아동 유하빈(2학년)

“장애가 있는 언니하고 트램폴린을 타다 넘어졌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아는 언니는 아니었는데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같이 뛰어 놀았어요.”



박재우(31/지체장애)

“이 놀이터를 통해 하나의 화합에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장애인이 갈수 있는 놀이터가 지금보다 더 없었죠. 기억에 남는 건 여의도 근처에 놀이터를 갔던 적.. 한 번 뿐이네요. 다시 어린시절로 돌아 가면 저 바구니 그네는 꼭 한 번 타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일잔치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 굉장히 기뻐요.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무원 김민호

“바구니 그네는 장애아동 산책코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에요”

장애아동들과 하루에 한번 정도 복지관 인근을 산책하는데요. 바구니 그네는 절대로 그냥 지치지 않는 코스예요. 잠깐이라도 타고 지나가야 될 만큼 아주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 만큼 놀이터를 즐기지 못했는데 장애아동들도 산책을 하면서 놀이를 즐기게 되어서 매우 즐거워해요.



초록어린이집 교사

“초록숲놀이터는 놀이뿐만 아니라 치료의 공간이 되기도 해요.”

과거에는 복지관 감각통합 치료를 주로 실내에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아동도 이 놀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실외에서도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암벽타기와 트램폴린을 이용해서 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

“오늘 초록숲놀이터 백일잔치를 한다고 해서 처음 와봤어요. 우리 친언니도 장애가 있는데 다음에 꼭 같이 오고 싶어요.”

에필로그

코오롱 그룹과 함께한
놀이터를 지켜라

에필로그

코오롱 그룹과 함께하는 놀이터를 지켜라

색동어린이공원



위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사업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
구성 마운딩, 원통슬라이드, 모래테이블, 그네, 파이프건너기, 하기, 흔들놀이, 나무놀이집, 앉음벽
 어둡고 더러운 놀이터로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였던 놀이터가 밝고 환한 분위기의 놀이공간으로 변화

초록숲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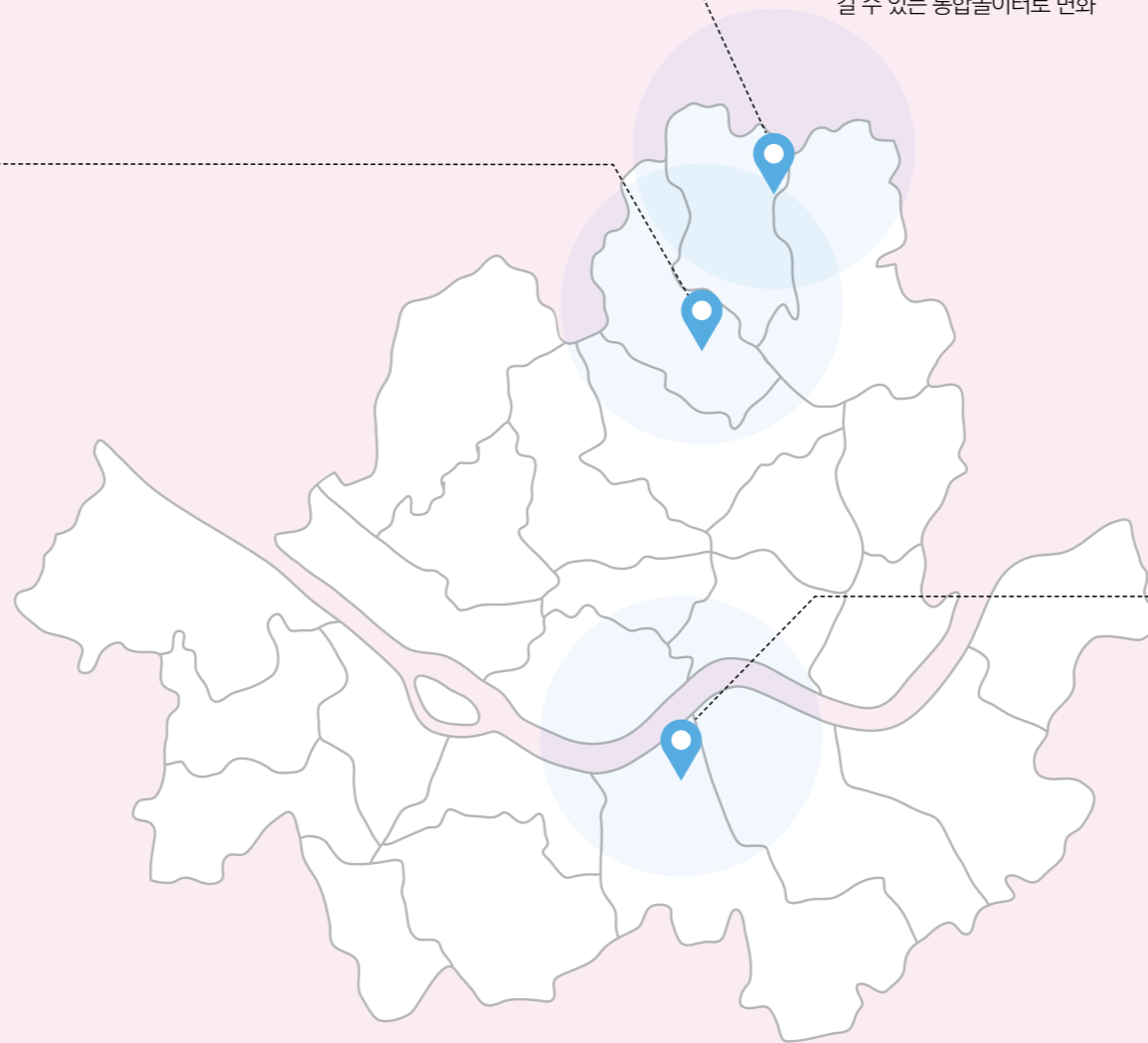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사업기간 2018년 3월 ~ 2018년 12월
구성 사면놀이대, 무장애 회전무대, 누워타는 시소, 트램폴린, 유니버설 다인용 그네, 양방향 모래놀이벽 등 이름조차 없던 체육공원 내 놀이터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놀이터로 변화



달님어린이공원



위치 서울 강동구 길동
사업기간 2016년 1월 ~ 2016년 11월
구성 마운딩 슬라이드, 네트놀이대, 모래놀이대, 달 파고라, 놀이가벽, 조형 벤치, 흔들 벤치, 운동시설물
 약취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아이들이 찾지 않는 놀이터에서 높은 마운딩이 돋보이는 놀이공간으로 새 단장



에필로그

달님어린이공원 / 노인정

놀이터 청결도 관리도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놀이터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약주에 취한 어르신들 때문에 놀이터를 찾지 않았던
길동의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의 보살핌 아
래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놀이터 청소는
물론이고 자잘한 놀이터 시설 보수 등에 어르신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슬라이드 아래에 물이 고여.
그러면 내가 와서 물을 퍼내고 배수가 잘 되라고 쓸어
내고 그러자~’

어느 새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 길동은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달님어린이공원 / 방주어린이집

아이들과 다양한 바깥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놀이터 이용연령을 고려해 다양한 놀이시설물이 설
치된 달님어린이공원. ‘놀이터 이용은 물론 너무 잘
이용하고 있지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모래놀
이장도 초반에는 자주 이용했는데, 아무래도 길고양
이들 배설물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인근의 어린이집에서는 여전히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실외 신체활동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
었다. 다양한 놀이경험을 통해 성장할 길동 아이들
의 모습이 기대된다.



색동어린이공원 / 어린이디자인단 박지윤

내가 디자인 한 놀이터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색동어린이공원을 디자인
한 지윤이 (6학년/수유초)
는 여전히 시간이 나면 색
동어린이공원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친구들한테 놀이터에 있
는 휠리스 레인을 제가 디
자인했다고 했더니 다들 놀라던데요?” 자신의 디자
인이 반영된 놀이터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자주 이
용하게 되면서 더욱 애착을 갖게 된 듯하다.

“다음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으면 또 참여 해보고싶
어요~” 앞으로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난 주인
의식을 잘 가꾸어나가길 바라본다.

색동어린이공원

색동어린이공원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놀이터로 선정되다.

지난 해, 새단장한 색동어린이공원이 2018년 행정안
전부 선정 우수놀이터로 선정되었다.

지형을 활용한 놀이공간으로 아이들에게 놀이에 대
한 호기심과 흥미를 일으키는 놀이터라는 평을 받았
다. 또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점도 우수놀이터
선정의 이유로 꼽혔다.



에필로그

놀이터 개선을 후원하는 이유



(주)코오롱
CSR사무국
신은주 부장

코오롱은 'Lifestyle Innovator'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을 연출하면서 놀이, 운동,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외부공간인 'OUTD∞R'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만의 사회공헌 철학을 담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꿈을 향한 디딤돌, 드림 파트너스'라는 슬로건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찾고 꿈을 이루는데 우리 코오롱이 파트너가 되고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꿈은 책상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실컷 뛰어놀며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의 끼와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오롱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고 되돌려주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에 공감했고, 또 놀이터가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서울시의 창의놀이터 개선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강동구 달님어린이공원과 2017년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을 재개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원구 초록숲놀이터를 새롭게 개장하였습니다. 지난 두 번의 놀이터 개선도 특별했지만 금번 초록숲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지향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간절함과 기대감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으며, 아이들이 그려준 워너비 놀이기구들은 깜짝 놀랄만큼 포용적이면서도 활동적이어서 꼭 그대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간절함과 기대감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으며, 아이들이 그려준 워너비 놀이기구들은 깜짝 놀랄만큼 포용적이면서도 활동적이어서 꼭 그대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예산과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어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과 개장 이후에 보여준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열정은 다시 경험해보기 어려운 뿌듯함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이 이 사업을 오래도록 지속해야겠다는 다짐과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세 개의 놀이터지만, 그 놀이터들이 모두를 위한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자 쉼터가 되어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다면 우리 코오롱의 참여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이끌어주신 세이브더칠드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바쁜 와중에도 전문성 기부를 아끼지 않으신 코오롱글로벌(주)의 김우성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필로그

놀이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안정호과장

지난 3년의 경험으로 확인 한 것은 놀이터에 대한 해답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서 찾을 때 언제나 옳았습니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들려준 이야기에는 새롭게 변화될 놀이터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놀이터는 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재활 또는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조성된 놀이터는 안타깝게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었습니다. 마들체육공원 한구석의 이름없는 놀이터가 초록숲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어린이디자인단에 참여한 아동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놀이터이야기는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터를 그리고 있습니다. 회전 무대, 광폭슬라이드, 그물그네, 안전벨트그네, 트램플린, 계단오르기, 모래놀이, 누워서 타는 시소등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든 이유입니다.

개장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경험한 지역주민들은 100일잔치 준비부터 진행까지 그들

아동은 무조건 놀아야 합니다.
아동이 함께, 맘껏, 실컷 놀 수 있는 세상에서
장애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이에 대한 욕구는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의 경험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인근 3개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참가자를 위한 간식제공과 참여프로그램 운영, 하모니카공연 및 학부모 축하공연을 지원하였고 인근의 단체들로 다양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100일 잔치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놀이터에서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동은 무조건 놀아야 합니다. 아동이 함께, 맘껏, 실컷 놀 수 있는 세상에서 장애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이에 대한 욕구는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수가 부족하고, 이들을 대하는 사회의 감수성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놀이터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년간 변치 않고 놀이터를 지켜라 사업을 후원해 주신 (주)코오롱에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초록숲놀이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어린이디자인단 친구들과 노원 놀세이버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 사업기간 2018년 3월 2일 ~ 2018년 12월 31일

★ 총괄 세이브더칠드런

★ 후원 (주)코오롱

★ 재능기부 코오롱글로벌(주)

★ 기획 (주)아이땅

★ 디자인 및 설계 (주)청우편스테이션

★ 사진 이승재 / 김수현

★ 함께 해주신 분들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노원놀세이버 / 노원어린이디자인단 / 초록어린이집 /
연두어린이집 / 새솔어린이집 /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 노원청소년수련관 /
마들상상놀이터 / 다운복지관 / 나라차태권도 / 좋은소리 / 호산나교회 / 바름이작은도서관 /
노원에코센터 / 노원구주민협의체 아동분과 / 풍선아저씨 / 와글와글놀이터 / 전용수미술사

★ 발행일 2018. 12. 31


★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 주관  세이브더칠드런

★ 후원  KOLON

★ 지원  서울특별시

 힐링노원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아동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입니다.